

방사선사의 전공 선택 동기와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과 임상실습에 미치는 영향

김정호¹, 김갑중^{2*}

¹선린대학교 방사선과, ²송호대학교 방사선과

Effect of Radiologist's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Occupational Values on Job Preparation Behavior and Clinical Practice

Jeong-Ho Kim¹, Gab-Jung Kim^{2*}

¹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Sunlin University

²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Songho University

요약 (연구목적)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전공 선택 동기와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 행동 및 임상실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의 실무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방사선(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임상실습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사회적 전공 선택 동기와 외재적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과 임상실습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사회적 전공 선택 동기가 55 %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외재적 직업가치관이 31.3 %의 설명력을 보여 사회적 전공 선택 동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응용)방사선(학)과의 예비 방사선사들의 입상에 취업 후 현장 실무 및 직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취업준비행동 및 임상실습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취업률 및 고용의 안정화, 인식개선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Research purpose)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motives for selecting the majors and professional values on job preparation behavior and clinical practice for radiologists working in medical institutions. Our results will help to strengthen the practical and job competencies of radiologists working in medical institutions, and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clinical practice as well as strengthening the employment competency of students. (Results) Social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extrinsic job value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job preparation behavior and clinical practice. In particular, the motivation for choosing a social major showed 55% explanatory power, and extrinsic job values were 31.3% explanatory power, indicating that the motivation for choosing a social major had a significant impact. (Future application) Our study indicates the necessity to focus on social employment rate, stabilization of employment, and awareness improvement in order to strengthe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clinical practice, and improve the quality of field practice and job after employment of prospective radiologists in the radiology department.

Keywords : Radiation Technologist, Student, Survey,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Gap-Jung Kim(Songho Univ.)

email: kim69gj@daum.net

Received June 23, 2022

Accepted August 3, 2022

Revised August 2, 2022

Published August 31, 2022

1. 서론

국립국어원 표준 대국어 사전에 정의된 직업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라고 정의되고 있다[1]. 즉, 직업은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종사하는 것으로 직업을 통해 만족감과 경제력을 취득하는 과정이다[2].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3/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수는 약 1억 9600만개로 2020년 3/4분기 기준 233만개의 일자리 감소와 282만개의 일자리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보건사회복지계열의 일자리 수 증감은 약 13.7만개의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연령별 변화량이 고령일수록 증가량이 더욱 증가됨에 따라 청년계층에서의 보건사회복지계열 일자리 증가는 1% 이하의 낮은 변화만을 보였다[3].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고, 직업의 업무행태도 많은 부분에서 자율성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비정규직 채용의 확대로 인해 하향취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4].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임시직 혹은 단순 노무직의 일자리 취업이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5]. 사회의 발전에 따라 세계적으로 전문화와 융복합적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의 협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6]. 하지만 국내 청년들의 취업이 비정규직과 임시직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로의 조기진출은 전문 인력의 감소와 더불어 국가의 전문성 퇴행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문성의 퇴행은 국가 경쟁력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7,8].

과거 대학 진학의 의미는 대학의 명성을 토대로 보다 안정되고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현실적으로도 노동시장이 이를 반영하게 되어 학과보다는 대학의 명성도를 위한 사교육 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9].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명성이 높은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일부 전공분야의 경우에는 취업이 힘들어 하향취업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분야로의 취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10,11]. 이는 계획된 취업의 가능성이 대학보다는 학과 전공에 의존되는 경향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공 분야별 선호도 및 취업의 양질에 관한 차이도 발생

하게 된다. 최근 청년 취업률이 질적 하락을 보이면서 학과 선택의 동기가 다양화되게 된다[12]. 이러한 학과 선택 동기와 더불어 직업의 가치관을 통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사선(학)과는 입시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학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학과 등과 같은 학과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경쟁률과 고품질의 일자리가 보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호도가 매우 높다[13]. 이는 경쟁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로 일반적인 지원자들의 경우에는 입학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이 매우 높으면서 다양한 관련 스펙이 있는 지원자가 아닌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의학과 등을 제외한 학과 중에 자신의 관심도, 성적, 스펙 등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계열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4]. 의사 등과 같은 고임금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국가자격증 취득을 통해 최소한의 임금수준이나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건계열의 학과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학과가 방사선(학)과라고 할 수 있다. 간호학과와 의학과는 방사선(학)과보다 높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기에 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의료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방사선사의 역할 및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5]. 뿐만 아니라 초 고령화 사회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방사선 진단 및 치료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방사선사의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16]. 따라서 방사선(학)과의 입학을 원하는 지원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방사선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17].

이러한 방사선(학)과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사선사 면허 취득자의 취업에 대한 기대치 대비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다[18-20]. 이러한 이유는 졸업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졸업 후 큰 규모에 취업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 높은 경쟁률에 따라 탈락하게 된다[21].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큰 규모의 의료기관에 지원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자괴감과 자존감이 낮아져 방사선사로서의 취업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규모가 큰 병원에서의 취업을 위해서는 임상실습에서의 학습수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임상실습의 수행역량은 단순히 임상실습 담당자의 역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세 및 마음가짐에 있다[22]. 이러한 관점에서 방사선(학)과에 대한 인식과 방사선사에 대한 인식이 임상실습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을 위한 자신만의 강점이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상실습 뿐 아니라 재학 중 혹은 졸업 후이라도 철저한 취업준비행동을 실시함으로써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취업에 성공하고 난 후라도 지속적인 근속을 통해 방사선사로서의 역량 및 노후가 증가되게 된다[23]. 하지만 방사선(학)과 및 방사선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 선택과 직업가치관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업포기가 보다 쉽게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선호도가 높은 방사선(학)과라고 하더라도 전공 선택 동기와 직업가치관은 취업준비행동 및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취업 유무 및 근속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방사선(학)과의 전공 선택 동기 및 직업가치관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및 임상실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방사선사의 역량 향상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모형은 Fig. 1과 같이 구성되었다. 방사선(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공 선택 동기와 직업의 가치관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또한, 임상실습의 내용에 따른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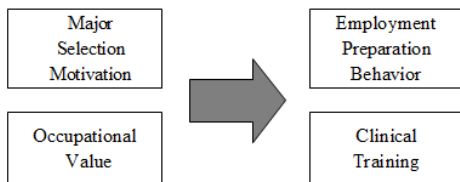


Fig. 1. Flow of Research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 및 D 광역시, G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2년 02월 28일부터 2022년 03월 06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구글 설

문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해 구글 설문 초입에 연구의 목적과 더불어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참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입하였다. 또한, 비밀보호법에 의거 해당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체 이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동의를 실시한 후에 본 연구에 해당하는 설문을 시작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 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조절변수 5개 항목을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P-Value 값을 0.05, 효과 크기는 0.15, 검정력을 0.95로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요구되는 최소 표본 수는 139개로 나왔으며, 설문 탈락률 30%를 고려하여 181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다. 이 중 링크 접속을 통해 설문에 응답한 수는 총 151명(회수율 83.4%)이다.

2.3 연구도구

2.3.1 전공 선택 동기

전공 선택 동기에 관한 설문 항목의 경우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24,25].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적 동기[적성, 흥미, 재능, 성적], 사회적 동기[인기도, 주변의 권유, 취업률, 고용의 안정성]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총 8개의 문항에 대해 매우 낮음인 1점부터 매우 높음인 5점까지 Likert Scale을 이용하여 5점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선택 동기의 기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모든 전공 선택 동기에 대해 Cronbach's α 값이 기준인 0.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0.601로 나타났다.

2.3.2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에 관한 설문 항목의 경우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24,25].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내재적 직업가치관[능력발휘, 성취도, 봉사, 적성], 외재적 직업가치관[급여, 명예, 고용의 안정성, 복지]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총 8개 문항에 대해 매우 낮음인 1점부터 매우 높음인 5점까지 Likert Scale을 이용하여 5점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의 가치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모든 직업의 가치관에 대해 Cronbach's α 값이 0.7보다 높은 값들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0.751로 나타났다.

2.3.3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측정도구는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정하였다[24,25].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회 참여, 어학공부, 관련 자격증, 학점 관리, 전공 진학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총 5개 문항에 대해 매우 낮음인 1점부터 매우 높음인 5점까지 Likert Scale을 이용하여 5점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으로 중요하게 실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모두 기준인 0.6보다 높은 값들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0.601로 나타났다.

2.3.4 임상실습

임상실습에 관한 측정도구는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정하였다[26].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습 태도 인자와 실습 수행 인자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총 5개 문항에 대해 매우 낮음인 1점부터 매우 높음인 5점까지 Likert Scale을 이용하여 5점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은 SPSS Win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dows) 14.0을 이용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평가하였다. 셋째,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취업준비행동과 임상조절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직업가치관에 따른 취업준비행동과 임상조절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든 설문 통계의 P-Value 값은 0.05미만으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의 빈도분석

설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 남성이 77명(51%), 여성이 74명(49%)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에는 20대 22명(14.6%), 30대 48명(31.8%), 40대 56명(37.1%), 50대 이상 25명(16.6%)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규모의 경우에는 의원 21명(13.9%), 준 종합병원 64명(42.4%), 종합병원 66명(43.7%)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umber	%
Gender	Male	77	51.0
	Female	74	49.0
Age	20's	22	14.6
	30's	48	31.8
	40's	56	37.1
	50's	25	16.6
Workplace Size	Local	21	13.9
	Semi	64	42.4
	Polyclinic	66	43.7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차이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성별에서 전공 선택 동기의 경우 여자(3.415점), 남자(3.475점)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직업가치관의 경우 여자(3.37점), 남자(3.295점)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취업준비행동은 여자(3.66점), 남자(3.59점)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임상실습은 여자(4.32점), 남자(4.21점)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연령에서 전공 선택 동기의 경우 20대(3.54점), 40대(3.485점), 50대 이상(3.448점), 30대(3.355점)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968, p<0.001$). 직업가치관의 경우 20대(3.51점), 40대(3.365점), 30대(3.26점), 50대 이상(3.255점)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94$). 취업준비행동은 20대(3.78점), 30대(3.63점), 40대(3.61점), 50대 이상(3.53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734, p<0.001$). 임상실습은 30대(4.31점), 20대(4.29점), 40대(4.24점), 50대 이상(4.2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5.666, p<0.001$).

의료기관의 규모에서 전공 선택 동기의 경우 종합병원(3.49점), 의원(3.45점), 준 종합병원(3.39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892, p<0.001$). 직업가치관에서 내재적 가치관의 경우 종합병원(3.405점), 준 종합병원(3.33점), 의원(3.12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017, p<0.05$). 취업준비행동은 의원(3.68점), 종합병원(3.67점), 준 종합병원(3.5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78, p<0.001$). 임상실습은 종합병원(4.44점), 의원(4.44점), 준종합병원(4.4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469, p<0.001$).

Table 2. Difference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riables

		MSM	OV	EPB	CT
		M±SD	M±SD	M±SD	M±SD
G	M	3.475±1.085	3.295±1.055	3.59±0.9	4.21±0.89
	F	3.415±1.085	3.37±1.095	3.66±0.86	4.32±0.76
	t	-25.751**	-39.543**	-37.329**	-66.311**
A	20's	3.54±1.02	3.51±0.995	3.78±0.91	4.29±0.79
	30's	3.355±1.105	3.26±1.065	3.63±0.84	4.31±0.81
	40's	3.485±1.08	3.365±1.095	3.61±0.88	4.24±0.83
	50's	3.448±1.08	3.255±1.07	3.538±0.95	4.220±0.87
	F	3.968**	2.133	3.734**	15.666**
	L	3.45±1.095	3.125±1.015	3.68±0.9	4.44±0.61
WS	Se	3.395±1.11	3.33±1.095	3.57±0.9	4.41±0.61
	Po	3.49±1.055	3.405±1.065	3.67±0.86	4.44±0.63
	F	1.892**	1.017	1.780**	7.469**

**p<.001, *p<.05
 G: Gender, A: Age, WS: Workplace size
 MSM: Major Selection Motivation
 OV: Occupational Value
 EPB: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CT: Clinical Training
 L: Local, Se: Semi, Po: Polyclinic

3.3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전공 선택 동기의 개인적 동기는 내재적 직업가치관(r=0.78, p<0.001)과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사회적 동기의 경우 외재적 직업가치관(r=0.66, p<0.001), 취업준비행동(r=0.74, p<0.001), 임상실습(r=0.25, p<0.0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직업 가치관에서 외재적 가치관의 경우 사회적 전공 선택 동기(r=0.66, p<0.001), 취업준비행동(r=0.56, p<0.001), 임상실습(r=0.17, p<0.05)이 상관관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행동과 임상실습 역시 유의미한 상관관계(r=0.26, p<0.001)를 가진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PM	SM	IW	EW	EPB	CT
Personal	1					
Social	-0.047	1				
Intrinsic	0.778**	-0.086	1			
Extrinsic	-0.028	0.657**	-0.011	1		
EPB	-0.041	0.742**	-0.045	0.560**	1	
CT	0.020	0.249**	-0.003	0.171*	0.263**	1

**p<.001, *p<.05
 PM: Personal Motivation, SM: Social Motivation
 IW: Intrinsic Work Values, EW: Extrinsic Work Values

3.4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및 임상실습의 영향

전공 선택 동기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및 임상실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적 전공 선택 동기의 경우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수정된 결정계수가 0.2%로 나타났으며(F=0.257, p=0.613), 임상실습에 미치는 영향은 수정된 결정계수가 0%로 나타났으며(F=0.058, p=0.81). 사회적 전공 선택 동기의 경우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수정된 결정계수가 55.0%로 나타났으며(F=182.24, p<0.001), 임상실습에 미치는 영향은 수정된 결정계수가 6.2%로 나타났으며(F=9.84, p<0.05).

Table 4.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EPB	CT	EPB	CT
B	-0.043	0.010	0.756	0.124
SE	0.085	0.042	0.056	0.039
β	-0.041	0.020	0.742	0.249
t	-0.507	0.241	13.500	3.137
R ² Adj	0.002	0.000	0.550	0.062
ΔR ²	-0.005	-0.006	0.547	0.056
F	0.257	0.058	182.242**	9.840*

**p<.001, *p<.05 SE: Standard Error

3.5 직업가치관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및 임상실습의 영향

직업 가치관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및 임상실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내재적 직업가치관의 경우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수정된 결정계수가 0.2%로 나타났으며(F=0.306, p=0.581), 임상실습에 미치는 영향은 수정된 결정계수가 0%로 나타났으며(F=0.001, p=0.973). 외재적 직업가치관의 경우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수정된 결정계수가 31.3%로 나타났으며(F=67.946, p<0.001), 임상실습에 미치는 영향은 수정된 결정계수가 2.9%로 나타났으며(F=4.470, p<0.05). 이를 통해 내재적 가치관의 경우 임상실습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재적 가치관의 경우가 보다 높은 영향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직업가치관은 임상실습 보다는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Effect of occupational value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EPB	CT	EPB	CT
B	-0.025	-0.001	0.511	0.076
SE	0.046	0.022	0.062	0.036
β	-0.045	-0.003	0.560	0.171
t	-0.553	-0.034	8.243	2.114
R ² Adj	0.002	0.000	0.313	0.029
ΔR^2	-0.005	-0.007	0.309	0.023
F	0.306	0.001	67.946**	4.470*

**p<.001, *p<.05

4. 논의

본 연구는 방사선학과 전공을 선택한 전공 선택 동기와 졸업 후 방사선사에 대한 직업가치관이 취업준비행동과 임상실습에 임하는 태도에 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과 비교하면 치위생학과에서는(S. H. Shin, 2017, p.183-184) 개인적 전공 선택 동기의 경우 내재적 직업가치관(r=0.276) 이외에도 사회적 전공 선택 동기(r=0.207), 외재적 직업가치관(r=0.113), 취업준비행동(r=0.313)에 대해서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27]. 사회적 전공 선택 동기의 경우 본 연구와 동일하게 외재적 직업가치관(r=0.111), 취업준비행동(r=0.156)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의 경우에는 취업준비행동에 개인적, 사회적 전공 선택 동기, 내재적, 외재적 직업가치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전공 선택 동기와 외재적 직업가치관에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상관관계 및 영향에 크기는 본 연구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응급구조과에 대해 연구에서는(D. Park, 2020, p.628-629) 개인적 전공 선택 동기의 경우 내재적 직업가치관(r=0.622) 이외에도 취업준비행동(r=0.631)에서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28]. 사회적 전공 선택 동기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외재적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에서 관계성이 보였지만 응급구조과에서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직업가치관은 취업준비행동(r=0.576)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본 연구와 동일하게 취업준비행동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취업준비행동에 대해 개인적 전공 선택 동기, 내재적 및 외재적 직업가치관이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과에서

의 연구는 치위생과의 연구에 비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 상반되는 결과가 존재하였지만 치위생과에 비해서는 관 계성 및 영향에 대한 수치 값의 차이는 적게 나타났다.

5. 결론

치위생학과 및 응급구조과의 취업 특성이 방사선(학)과의 취업 특성과 차이가 있는 것에 기인한 영향과 더불어 코로나 펜데믹 현상으로 인해 전공 선택 및 직업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임상실습의 경우에도 취업준비행동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통해 전공 선택 동기 및 직업 가치관이 향상됨에 따라 임상실습의 질적 요구가 병행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지위 향상, 권익 신장 등의 사회적 인식 향상이 뒷받침되는 물론 이에 따른 직업 가치관의 향상을 위한 직무 개선 및 고용, 보수에 관한 질적 향상도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Definition of Occupation [Internet].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cited 2014 December 22]. Available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 (accessed Mar. 06, 2022)
- [2] K. R. Nho, S. J. Huh, "The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and Internship on Youth Workers' the Economic Outcome and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0, No.3, pp.93-109, Sep. 2011.
- [3] J. S. Cha, G. A. Kim, *3Q 2021 (as of August) Wage and Employment Trends*, Statistical Office, pp. 1-2, 2022.
- [4] J. S. Kim, B. G. Lee, J. Y. Shin, "Job Seeking Method and Overeducation of Young People"; *Labor Policy Research*, Vol.12, No.2, pp.51-73, Dec. 2012. DOI: <http://dx.doi.org/10.22914/jlp.2012.12.2.003>
- [5] S. G. Lee, "Digitalization in Work and Changing of Workers' Status",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 Vol.28, No.3, pp.181-215, Apr. 2018.
- [6] W. W. Huh, "A Study on convergence career program for effective job experience of youth -Focus on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Vol.10, No.2, pp.147-155, Apr. 2021. DOI: <http://dx.doi.org/10.29056/jncist.2021.04.04>
- [7] T. J. Cho, "Exploratory Analysis on Strengthening

- Public Professionalism: Focusing on Institution for Improving Public Professionalism", National Policy Research, Vol.34, No.1, pp.101-130, Mar. 2020.
DOI: <http://dx.doi.org/10.17327/ippa.2020.34.1.005>
- [8] L. Ning, K. H. Han, "A Comparative Analysis of Education Environment of Major Popular Music Department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China: Base on the Rate of Teacher recruitment, Educational facilities, and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Vol.19, No.2, pp.237-255, Jun. 2021.
- [9] S. Y. Lee, "Can Welfare States Solve the Problem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3, pp.172-182, Mar.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3.172>
- [10] G. W. Cho, "Occupational Diversification of Doctora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echnology innovation research, Vol.28, No.3, pp.55-76, Aug. 2020.
DOI: <http://dx.doi.org/10.14386/SIME.2020.28.3.55>
- [11] H. S. Sa, H. S. Woo, "A Study on Spatial Characteristics and the Determinants on Education-Job Match of the Youth in Korea : Focused on Individual Attributes and Regional Environmental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55, No.5, pp.501-519, Oct. 2020.
DOI: <http://dx.doi.org/10.22776/kgs.2020.55.5.501>
- [12]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8.
<https://kostat.go.kr>
- [13] H. N. Jung, E. B. Yang, "A study on selrah six factor personality(SFP) by entrance type of medical school in Korea", pedagogical research, Vol.56, No.4, pp.47-76, Dec. 2018.
DOI: <http://dx.doi.org/10.30916/KERA.56.4.47>
- [14] Y. S. Bang, H. Y. Kim, "Academic Preference Strategy and Memory According to Learning Style of Students Majoring in Health",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8, No.3 pp.9-16, Sep. 2014.
DOI: <http://dx.doi.org/10.21184/ikeia.2014.09.8.3.9>
- [15] H. C. Jang, P. K. Jo, "A Study on the Basic Mathematical Competency Levels of Freshmen Students in Radiology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Vol.14, No.2 pp.121-127, Apr. 2020.
DOI: <http://dx.doi.org/10.7742/jksr.2020.14.2.121>
- [16] M. J. Kim, J. Y. Hwang, "A Study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prepare for the Super-Aged Socie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0 pp.395-405, Oct. 2019.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9.20.10.395>
- [17] C. S. Kim, H. G. Kim, "Radiological Science Curriculum on the Digital Radiology Environments : Problems and Suggestions",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28, No.2 pp.129-135, May. 2005.
- [18] E. O. Han, D. M. Kwon, K. H. Park, S. Y. Choi, C. H. Jung, S. I. Bae, C. W. Oh, "The Job Consciousness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in Korea, Canada, and Australia",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32, No.2 pp.225-234, Jun. 2009.
- [19] S. G. Shin, "Comparison of Satisfaction on Each Major Dept. of Health-Related Universities Located in Busan and Gyeongnam",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34, No.2 pp.131-140, Jun. 2011.
- [20] E. O. Han, B. S. Kim, "Requirements in the Overseas Employment and Domestic Connected Education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 Refers to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Radiation",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31, No.2 pp.191-198, Jun. 2008.
- [21] Y. S. Jo, "The Effect of Universities graduates' Job Preparation Behavior on Employment and Decent Jobs", Journal of the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Education Association, Vol.21, No.1 pp.133-161, Jan. 2021.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1.21.1.133>
- [22] Y. J. Lee, Y. S. Kim,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Autonomy, and Career Search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3, No.4 pp.474-485, Nov. 2017.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7.23.4.474>
- [23] J. Y. Yoo, "A Study on the Effects of Job Experiences of College Graduate Youths on Employment Period in Their First Job",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7 pp.164-173, Jul. 2018.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8.19.7.164>
- [24] Y. K. Oh, E. Y. Kim, "The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Self-Efficacy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4, No.1 pp.36-43, May. 2018.
DOI: <http://dx.doi.org/10.14370/jewnr.2018.24.1.36>
- [25] K. E. Kim, B. Y.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0 pp.885-896, Oct.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0.885>
- [26] Y. H. Jung, Satisfaction on the Clinical Training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Techniques,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of Public Health, Gyeongsangbuk-do, Korea, pp.15-44, 2004.
- [27] S. H. Shin, "A study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motive to select dental hygiene as major and their work valu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7, No.5, pp.853-864, Sep. 2017.

- [28] D. Park, Y. Kim, "Effects of Paramedic Students'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Occupational Value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Moderating Effect of Mentor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11, pp.624-633, Nov. 2020.

김 정 호(Jeong-Ho Kim)

[정회원]



- 2013년 8월 : 전북대학교 방사선 과학기술학과 (이학석사)
- 2017년 8월 : 전북대학교 방사선 과학기술학과 (이학박사)
- 2011년 9월 ~ 2020년 9월 : 건양 대학교병원 방사선사
- 2020년 9월 ~ 현재 : 선린대학교 방사선과 교수

<관심분야>

방사선학, 교육학, 물리학, 의학

김 갑 중(Gab-Jung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건양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5년 2월 : 충북대학교 의용생체공학과 (공학박사 수료)
- 2017년 3월 ~ 현재 : 송호대학교 방사선과 교수

<관심분야>

핵의학, 방사선치료학, 의료영상정보